

日 중의원 선거 연립여당 압승...아베 장기집권 길 터

자민·공명당 325석 차지

'아베노믹스' 부정적 여론에도

'대안없는' 야당 참패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의 압승 이유는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를 대신할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경제 이외의 다른 이슈를 부각하는 데 실패한 점도 아베 정권의 승리를 도운 요인으로 꼽힌다.

◇자민·공명당 압승...야당, 아베 정권 견제에 역부족 = NHK의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공명당은 35석을 각각 얻었다.

이는 자민당 단독 과반(238석)을 달성한 것이자, 연립여당 차원에서 3분의 2(317석)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야당의 의석은 중의원의 의장을 포함해 326석 이던 해산 전과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됐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73석을 확보하며 선거 전보다 약간 세를 불렀지만, 세자릿수 의석 확보와 자민당의 단독 과반 저지 등 앞서 내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명 전선을 펼친 유신당은 41석(기존 42석)으로 현상유지를 했다.

공산당이 21석으로 기존(8석)의 약 두 배 이상으로 당치를 키운 반면 차세대당은 기존 19석에서 2석으로 몰락했다. 전반적으로 여당이 선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승리하고 야당은 정당 간 의석 증감으로 내부 세력이 변하는 선에 머물러 야당을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공조해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 할 수 있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요건도 전과 다름 없이 충족하는 등 계속 정국을 주도할 전망이다.

◇'아베노믹스 선거'...대안없는 야당, 선거전 주도 못 해 = 주목할 점은 자민당이 선거의 화두로 제시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음에도 여당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력한 야당을 신뢰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그나마 아베 정권에 계속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은 '이 길밖에 없다'는 구호로 아베노믹스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고 취업률과 추가 상승을 거론하며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호소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말 이 길밖에 없겠냐'고 맞붙 작전을 시도했으나 반대를 넘어 독자적인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안이 불투명한 야당이 표를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기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제3차 정권 출범, 기존 각료 재기용 방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 압승에 따라 제3차 정권을 출범할 때 기존 각료를 재기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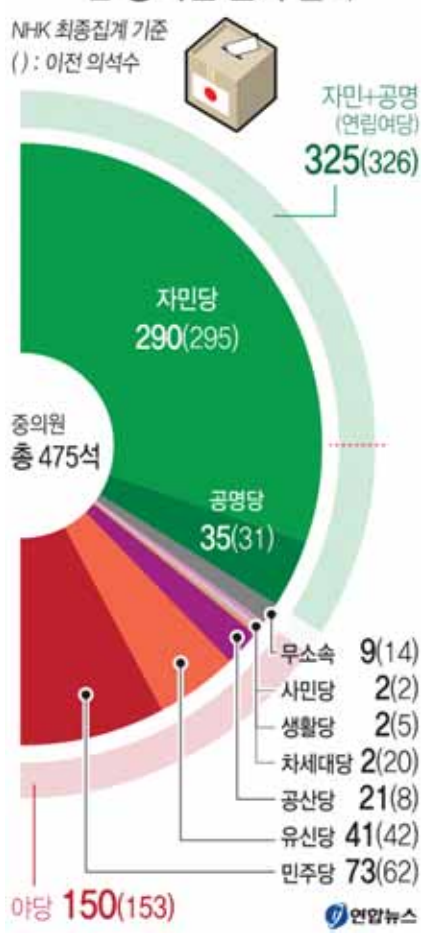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개각을 단행한 지 아직 4개월이 안 됐고 새로 인선하면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15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나 이런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 정권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제2차 아베 내각이 총 사퇴하고 아베 총리가 재 지명되는 특별국회는 24~26일 열릴 전망이다. 교통신은 아베 총리가 24일에 3차 내각을 발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가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가 넘게 차지하는 압승으로 끝난 점 등을 고려해 다가가기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 등 당 주요 간부도 유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経)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日 중의원 선거 결과



호주 시드니서

IS 소행 인질극

한국교포 1명 탈출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질극이 발생했다.

40여 명의 인질 중에는 이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국 교민 여대생 배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영 ABC방송 등 현지 언론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시드니 시내 금융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의 린트 초콜릿카페에 IS 지지자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이 침입, 손님 30여 명과 종업원 10여 명 등 40여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당국은 오전 9시45분 신고를 받고 특수경찰을 출동시켜 인질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다.

총기를 소지한 이 괴한은 인질들을 위협해 큰 IS 깃발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카페의 큰 유리창에 매달아 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괴한이 중동계인지 등 정확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호주 당국은 아직 보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인질 40여명 중 3명이 카페에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호주 경찰은 마틴플레이스 인근 도로와 지하철 역, 주요 건물 등을 봉쇄하고 중무장한 경력을 주변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시드니 도심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도 통제됐다.

금융·상업 변화가인 마틴플레이스에는 시드니 주재 미국총영사관과 맥쿼리그룹 본사, 호주연방준비은행 등 주요 외국 공관과 기업체들이 있으며 연말 쇼핑객으로 붐비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즉시 시드니 총영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시드니 내 미국 시민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시드니의 관광명소인 오페라하우스에서도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사무국 직원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니 애브 총리도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보위원회 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지난 9월 테러경보위험수준을 '보통'(medium)에서 '높음'(high)으로 격상했다. /연합뉴스



79일만의 철거

15일(현지시간) 아침 홍콩 경찰이 홍콩섬 코즈웨이베이 민주화 시위대 점거지역 도로에서 마지막 시위대 캠프의 텐트들을 철거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인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 개시 79일 만이다. /연합뉴스

홍콩 도심 점거 시위 경찰, 마지막 캠프 철거

홍콩 도심 점거 시위의 마지막 캠프가 15일 철거된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홍콩정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홍콩섬 코즈웨이베이 시위캠프 철거에 나서기로 하고 도심 점거 시위대에 불필요한 충돌이 일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철수를 거부하거나 철거 작업을 방해하는 이들을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즈웨이베이 지역의 시위 캠프가 철거되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인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공식 종결된다. 시위 개시 79일 만이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도심 점거 시위가 이처럼 종결을 맞고 있지만, 시위대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 캠프 철거가 진행되는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주변을 맴돌고 있고, 14일에는 산발적인 거리행진을 벌이다가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이틀간 가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 지역의 시위캠프를 철거하면서 중·고등학생 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의 조슈아 왕(黃之鋒·18) 위원장 등 시위대 169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경품 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겸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축적보관기념품 포함)

선물1

(개최시 명품 응모권 증정)

- 1등: 황금열쇠수금1남(1명)
-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등인 1인 포함]3명
-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선물2

(기념품(4명))

- [핸드크림]
- [시약세트]

선물3

(개최시 축적보관 증정(100%증정))

- [풍장지갑]
- [글라스백 일백명 기념품]
- [세라믹코팅 냄비]

자력기준

- 총자산 10억원 이상 할당과목
- 당기매출 15000만원 이상 기업고객
- 대출 1,000만원 이상 신행고객
- 생량과제, 자문서비스 기업고객
- 전자금융 신규자
- 자문이세 3년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재발의이상 이용고객
- 당기 1,000만원 이상 신행고객
- 관동추진팀의 대상유치 및 이용 고객
- 당기 자력기준은 최면제 시행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광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명 010 56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